



강기정 시장, 시청 간부들과 광주FC 응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구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 참석해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들과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광주FC는 2-1로 승리했다. /광주시 제공

신유빈, 탁구세계선수권 상금 기부

빈곤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위해 1000만원 전달



한국탁구의 에이스 신유빈(18·대한항공)이 또 한번 따뜻한 선령을 실천했다. 신유빈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GNS는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신유빈이 가정밖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막을 내린 2023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선수권에서 '더반의 기적'을 쓰며 여자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얻은 상금으로 이뤄졌다. 신유빈은 상금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후원에 나섰다. 신유빈의 따뜻한 마음은 매년 이어져왔다. 생애 첫 월급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60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선물한 데 이어 한국초등탁구연맹에 유소년 후배들을 위해 탁구 용품을 기부한 바 있다. 이 밖에 한국여성탁구연맹,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도 의료비를 후원하는 등 꾸준한 선령을 이어왔다. 이날 신유빈이 전달한 후원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전국의 생리 빈곤에 놓인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용품 키트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신유빈은 "포래의 친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 교체 횟수를 줄이거나, 올바른 생리 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거웠다"면서 "세계 월경의 날인 5월28일에 상금을 받게 돼 더욱 의미가 있는 만큼 뜻깊은 곳에 쓰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IA 소크라테스 스리런포, 홈런존 직격

3500만원 상당 자동차가 선물로
홈런존으로 타구 날려... '더 2024 니로' 받아

KIA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홈런 한 방으로 자동차까지 품었다. 소크라테스는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리그 SSG 랜더스전에서 3회말 무사 2, 3루에서 SSG 투수 백승건을 상대로 스리런포를 쏘아 올렸다. 오른쪽 담장을 넘어간 타구는 'KIA 홈런존'을 직격했다. KIA는 챔피언스필드 개장 첫 해인 2014년부터 오른쪽 외야에 'KIA 홈런존'을 운영하고 있다. 바운드가 없이 홈런존 차량 및 구조물을 맞히는 선수에게 전시 차량을 준다. 소크라테스는 KIA 홈런존에 전시 중이던 '더 2024 니로' 차량 구조물을 때려 3500만원 상당의 동일 모델 차량을 선물 받게 됐다. 한편 지난해까지 KIA 홈런존으로 타구를 날려 차량을 받은 선수는 두산 베어스 김재환(2014년 5월 27일 K5), KIA 최희섭(2015년 4월 9일 올 뉴 쏘렌토), 삼성 라이온즈 오재일(당시 두산·2017년 10월 25일 스티밍어), KIA 프레스턴 터커(2020년 5월 17일 쏘렌토), LG 트윈스 김현수(2020년 8월 4일 쏘렌토), 나성범(2021년 9월 12일 K5·2022년 8월 16일, 더 뉴 셀토스) 등이다. NC 다이노스 소속으로 처음 차량을 받았던 나성범은 이듬해 KIA로 이적해 다시 한번 자동차를 얻었다. /뉴스



KIA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7일 광주 SSG 랜더스전에서 KIA 홈런존에 타구를 날려 차량을 선물받게 됐다.

전남, 충북청주 경기 'ONE TEAM' 경기 임한다

전남드래곤즈, 홈경기 2연승...분위기 반전 성공



인터뷰하는 전남드래곤즈 발디비아.

홈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가 오는 11일 오후 4시에 청주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K리그2 2023 R17 충북청주FC(이하 충북청주)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최근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34분 발디비아가 오른쪽 발터닝슛을 성공시키며 1-0으로 승리했다. 홈 2연승으로 중위권 도약에 성공한 전남은 R17 충북청주 원정 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가고자 한다. 경기 종료 후 발디비아는 "전남에 승리를 위해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면서 "오늘 팀 분위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던 것 같다. 나의 특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5월 최고 선수는 박동원
LG, 4년 만에 월간 MVP 배출

현재 승점 20점으로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은 중위권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승점 3점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남이 상대할 충북청주는 최근 김포에게 승리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청주는 장혁진, 박진성이 중원에서 불을 연계하고 조르지가 유호슈팅을 기록하고 있어 전남은 이를 대비해야 한다. 전남은 발디비아, 장성재, 노건우가 중원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8개월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한 포워드 이용재가 경기력을 되찾고 있으며 김천전 K리그 첫 풀타임 출전 경기에서 베스트 11에 선정된 수비수 유지하도 팀 승리를 위해 원정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K리그2 2023 R17 전남과 충북청주의 경기는 쿠팡플레이와 sky Sports에서 생중계된다. 연승을 통해 중상위권 도약을 목표하는 전남은 충북청주 원정에서 어떠한 경기를 보여줄지 축구팬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포수 홈런왕’에 도전하는 LG 트윈스 박동원(33)이 생애 첫 월간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박동원이 2023 신한은행 쏘 KBO리그 5월 월간 MVP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동원은 기자단 투표 총 29표 중 16표(55.2%), 팬 투표 43만1790표 중 17만8638표(41.4%)를 얻어 총점 48.27점을 획득, 총점 15.32점을 받은 팀 동료 임찬규(LG)를 제치고 월간 MVP를 거머쥐었다. LG가 월간 MVP를 배출한 건 2019년 이후 4시즌 만이다. 2023시즌을 앞두고 LG에 합류한 박동원은 가장 큰 규모의 잡실 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면서도 홈런을 평평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에만 9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영양가 있는 타격으로 타점과 장타율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5월 한 달간 25타점, 장타율 0.787을 기록해 팀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5월 MVP로 선정된 박동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골판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핏[GOLF 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